

'투게더 앳 홈' 모금액만 1억3000만달러

거물급 팝스타 총출동 한 온라인 콘서트 전세계 코로나19 피해 지원에 사용 예정

거물 팝스타들이 대거 출연한 온라인 콘서트 '원월드: 투게더 앳 홈' (이하 투게더 앳 홈)에 1억3000만달러에 육박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부금이 모였다. 발표되는 19일(이하 현지시간) '투게더 앳 홈'을 통해 바이러스 대유행에 맞서 싸우는 의료 종사자들을 위한 1억2790만달러의 기부금이 마련됐다고 보도했다.

주최사인 빈곤퇴치 단체 '글로벌 시티즌'은 이 중 5510만달러를 세계 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연대 대응 기금에 지원해 환자와 의료진에게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고 백신 개발에 속도를 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금액인 7280만달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는 전 세계 지역의 푸드뱅크, 쉼터, 지역사회단체, 금융기관 등을 지원하는데 쓴다.

지난 18일 열린 '투게더 앳 홈'은 TV방송 중 시청자에게 기부부를 독려하지 않았지만 거금이 모였다. 주최자 레이디 가가가 비롯해 진행자 지미 키멀 등은 "지갑을 치워 버려라"라고 말하면



온라인 콘서트 '투게더 앳 홈'을 주최한 팝스타 레이디 가가가 자신의 집에서 카메라를 바라보며 라이브 공연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서 "오늘 콘서트는 최선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의료진을 격려하기 위한 자리"라고 강조했다.

'투게더 앳 홈'은 레이디 가가, WHO, 글로벌 시티즌이 공동으로 주최한 대규모 온라인 콘서트로 방송 채널과 온라인으로 전 세계에 중계됐다.

엘튼 존, 스티비 원더, 테일러 스위프트, 카밀라 카베오, 셀린 디옹, 빌리 아일리시, 찰리 푸스, 션 멘데

스, 존 레전드, 베키 지, 제니퍼 로페즈, 리조, 샘 스미스, 슈퍼맨 등 가수 60명 이상이 자기 집에서 촬영한 라이브를 선보였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 빌-멀린다 게이츠 부부, 오프라 윈프리, 데이비드-빅토리아 베컴 부부, 엘런 디제너러스 등 각계 유명인사들도 출연해 희망적 메시지를 전달했다. 연합뉴스



스티비 원더.

코로나 직격탄에 3월 영화 관객 '역대 최저'

전체 관객 수 183만명... 전년 대비 87.5% 감소

코로나19로 극장가가 얼어붙으면서 3월 영화 관객 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영화진흥위원회가 20일 발표한 3월 한국영화산업 결산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관객 수는 183만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는 1284만명(87.5%) 감소했다. 집계를 시작한 2004년 이후 3월

관객 수는 물론이고 전체 월별 관객 수도도 가장 적다. 매출액은 152억원으로 1114억원(88.0%) 줄었다. 이렇다 할 개봉작이 없었던 한국 영화의 감소폭이 외국영화보다 더 컸다. 지난달 한국 영화 관객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96만명(95.1%) 급감해 31만명에 그쳤다. 역시 2004년 이후 최저치다. 외국영화는 같은

기간 688만명(81.8%) 줄어든 152만명으로, 2005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디지털 온라인 시장을 겨냥한 성인물, B급 액션 영화 등을 제외한 한국 영화 실질 개봉 편수는 지난 1월 14편, 2월 10편이었으며 3월에는 7편으로 줄었다.

일일 관객 수도 연일 최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지난달 23일 2만 6000명까지 감소했던 일일 관객 수

는 지난 6일 1만6000명으로 집계 이후 처음 1만명대로 떨어졌으며 7일은 1만5000명을 기록했다.

3월 흥행 1위 영화는 이렇다할 경쟁작이 없었던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인비저블'이었다. 이 영화는 한 달 동안 43만명을 동원했으며 개봉 이후 28일 연속 박스오피스 1위 자리를 지켰다.

개봉작이 줄어들면서 극장가는 재개봉작으로 부족한 공급분을 채우고 있다. 지난 2월 26일 재개봉한 '해리 포터와 아즈카반의 죄수'가 3월 3만 2416명을 동원하며 재개봉작 흥행 1위에 올랐고 '스타 이즈 본'(3만 2283명)이 그 뒤를 이었다. 연합뉴스

칸 영화제 필름마켓 온라인으로 개최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코로나19로 연기된 올해 제73회 칸 영화제의 필름마켓이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칸 영화제 조직위원회는 지난 18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영화 산업 종사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필름마켓을 오는 6월 22일부터 온라인으로 연다"고 밝혔다.

티에리 프레모 집행위원장은 "하반기에 어떤 일이 생길지, 칸 영화제를 포함한 영화계 주요 행사들을 개최할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며 "그래서 칸 영화제는 올해만 특수하게 온라인마켓을 열기로 했다"고 전했다.

올해 칸 필름마켓은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열리며 마켓 측은 가상 부스, 비디오 미팅, 온라인 상영 등을 통해 오프라인 마켓과 유사한 환경을 만들 계획이었다.

제롬 파이어야르 칸 필름마켓 위원장은 "재름 파이어야르 여름이 오기 전에 만나고 싶어한다. 지난 주에 전 세계 배급사를 상대로 우리가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 중 80%가 온라인 마켓에 관심이 있었으며 66%가 영화 구입

능력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전했다.

다만 영화제 자체는 온라인으로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최근 프레모 위원장은 외신 인터뷰에서 "칸 영화제가 무엇인지를 생각한다면 온라인 영화제는 있을 수 없다. 기간이 짧아지거나 섹션 수가 줄어들지도 않을 것이다"며 "만약 영화제가 열린다면, 모든 자원 등을 활용해 완전하게 열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김태희 복귀작 '하이바이, 마마!' 5.1% 종영

연기력 논란 종식은 성과 이야기는 공감대 못 이뤄

5년 만에 대중 앞으로 돌아온 김태희의 복귀는 성공적이었으나 작품에 대한 시청자들의 평가는 냉정했다. 20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방송된 tvN 주말드라마 '하이바이, 마마!' 마지막 회 시청률은 5.13%(유료 가구)를 기록했다.

'하이바이, 마마!'는 방송 전부터 가수 겸 배우 비(정지훈)와 결혼하고 두 아이의 엄마가 된 뒤 배우 김태희의 첫 복귀 작품으로 기대를 모았다.

실제로 엄마가 된 그는 '하이바이, 마마!'에서도 하나 뿐인 딸을 끔찍이도 사랑하는 엄마 연기를 안정적으로 소화해냈다.

1회부터 연기에 대한 호평을 받으면서 이번 작품에선 프리뷰처럼 다

라붙었던 연기력 논란을 떨쳐버리는 데 성공했다.

문제는 이야기였다. 극 초중반부엔 주인공 차유리(김태희 분)-조강화(이규형)의 이야기보다 주변 귀신들의 에피소드에 분량을 할애하면서 기대와 다른 전개를 보이더니, 차유리의 입장보다 조강화의 새 부인 오민정(고보결)에 동조하는 듯한 스토리로 시청자들의 반감까지 샀다.

약역 없는 착한 드라마라는 긍정적인 평도 있었지만 차유리의 환생을 두고 이리저리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지지부진하고 답답하다는 혹평도 쏟아졌다.

드라마는 6%대 시청률로 시작했지만 회를 거듭할수록 시청자들이 이탈하더니 14회에선 4%대 초반까지 떨어졌다.

'하이바이, 마마!' 후속으로는 오는 25일부터 유지태와 이보영 주연의 '화양연화 - 삶이 꽃이 되는 순간'이 방송된다. 연합뉴스

'사냥의 시간' 넷플릭스서

23일 전 세계 동시 공개

영화 '사냥의 시간'이 넷플릭스를 통해 오는 23일 공개된다.

넷플릭스는 "'사냥의 시간'이 23일 오후 4시 전 세계 동시 공개된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오후 9시에는 윤성현 감독과 이재훈, 안재홍, 최우식, 박정민, 박해수, 이동진 영화 평론가가 함께하

는 GV(Guest Visit, 관객과의 대화)가 진행된다. GV는 넷플릭스 코리아 유튜브 채널과 네이버 V 라이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앞서 '사냥의 시간'은 지난 10일 공개될 예정이었으나 이 영화의 해외 판매사 콘텐츠판다와 배급사 리블픽처스 간 법정 공방과 법원의 상영금지 가처분 인용으로 공개가 한 차례 보류됐다.

이후 두 회사는 합의에 이르러 영화는 관객과 만나게 됐다. 연합뉴스



김수환 추기경 어린시절 다룬 영화 '저 산 너머'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CGV 용산아이파크몰점에서 열린 김수환 추기경의 어린 시절을 다룬 영화 '저 산 너머' 무대인사에서 최충득 감독(왼쪽 첫번째)과 출연 배우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KBS1	KBS2	MBC	JIBS/SBS	EBS1
6: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7:35 KBS 뉴스광장 제주 7:50 인강극장 8:25 아침마당 9: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1:55 KBS 착한 소비 프로젝트 우리 함께	6:00 걸어서 세계속으로 6:50 생방송 아침이 좋다 8:00 KBS 아침 뉴스타임 9:00 기막힌 유산(재) 9:40 무한리플 샐러드 10:40 지구촌 뉴스 11:00 제보자들(재)	6:00 MBC 뉴스투데이 1부 6:25 MBC 뉴스투데이 2부 7:20 MBC 뉴스투데이 제주 7:50 나쁜 사람 8:30 TV매거진 해피플러스 9:30 930 MBC 뉴스 9:50 기분 좋은 날 10:50 365:운명을 거스르는 1년(재)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20 JIBS 아침 뉴스 7:35 모닝와이드 3부 8:35 맛 좀 보실래요 12:25 세상의 모든 법적 9:10 좋은 아침 10:10 SBS 뉴스 10:30 특집 심야 나는 오늘 11:00 꾸러기 탐구생활 11: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7:30 뽀롱뽀롱 뽀로로 8:00 당당맨 유치원 9:30 페퍼 피그 9:40 생방송 우리집 유치원 12:00 EBS 정오뉴스 12:25 세상의 모든 법적 14:55 뽀로로와 노래해요 15:10 꼬마버스 타요 15:55 꼬마허어로 슈퍼잭 16:10 피시 16:40 당당맨 친구들 18:00 생방송 토크쇼 보니 하니 19:45 자이언트 펭TV
12: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13:00 KBS 네트워킹 특선 거북이 뉴스 13:50 슈퍼 13:55 착한 소비 프로젝트 14: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4:30 아생아정(재) 15:05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재) 16: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시사간선 17: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70: 동물의 왕국	12:05 생생정보 스페셜 12:45 동물학당 수다솜(재) 13: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15: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5:10 자동차부착식 위키2 15:30 TV 유치원 16:00 무한리플 샐러드 17:00 날아라 순들이 뉴비기닝 스페셜(재)	12:00 12 MBC 뉴스 12:20 따라라 따라라 똑딱맨 12:50 뽀로로 모두야 놀자 13:20 헬로키키즈 글로벌 동물 뉴스 13:50 2시 뉴스 외전 15:20 나쁜사람(재) 16:00 코로나19 특집 2020 대구 봄 17:00 5 MBC 뉴스 17:30 유엔 다류 사람이 좋다 스페셜	12:00 JIBS 12뉴스 12:25 JIBS 뉴스 12:50 TV 동물농장(재) 14:00 뉴스브리핑 16:00 내로세모(재) 17:00 SBS 오뉴스 17:45 JIBS 뉴스	7:00 김태희의 아침뉴스 7:30 김형철의 뉴스쇼 9:05 김태희가게 김석훈입니다 12:00 CBS나눔통신 12:05 찬양이 있는 숲길 13:30 생명의 샘 15:00 CBS 뉴스 17:05 시사매거진 제주 18:00 CBS 저녁종합뉴스 18:25 시사키 포인트입니다 21:35 라디오강연 22:05 채신아의 기스벨이워
18:00 6시 내고향 19:00 7 오늘 제주 19:40 보물섬 20:30 기막힌 유산 21: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22:00 역사재널 그날 22:55 더 라이브 23:35 착한 소비 프로젝트 23:40 슈퍼 23:45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8:00 KBS 경제타임 18:30 2TV 생생정보 19:50 위험한 약속 20:30 글로벌24 20:55 본 아가네(재) 22:00 본 아가네 22:35 본 아가네 23:10 스탠드 업 1부 23:50 스탠드 업 2부	18:30 사색의 공동체 스미다 19:35 MBC 뉴스데스크 20:55 365:운명을 거스르는 1년 21:30 365:운명을 거스르는 1년 22:00 웃음주식회사 속담수다 23:00 PD수첩 23:55 그 날자의 기억법(재)	18:00 행복실계 일빠배기(재) 18:00 열린예술투대 뒤란 19:00 SBS 8 뉴스 20:35 JIBS 8 뉴스 20:55 생활의 달인 21:40 아무도 모른다 22:20 아무도 모른다 23:00 불타는 청춘 1부 23:40 불타는 청춘 2부	7:00 KCTV 뉴스 8:30 문화카페 10: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정질문 13:00 UHD 특선 14:00 방송콘텐츠 경연대회 '꿈을 그리다' 15:10 심 이어 인턴 17:00 KCTV 뉴스 18:00 방송콘텐츠 경연대회 '꿈을 그리다' 19:00 KCTV 뉴스7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TBN 제주교통방송 제주시 FM 105.5MHz 서귀포시 FM 105.9MHz
KBS ☎ 064-740-7331 / MBC ☎ 064-740-2432 / JIBS ☎ 064-740-7800 / KCTV ☎ 064-741-7723 / 제주CBS ☎ 064-748-7400

오늘의 운세	21일
	36년 여행을 자제하고 흥을 보지 마라. 48년 현재의 일이 힘들다고 변동하는 것보다는 자중함이 좋다. 60년 쉼과 과욕의 마음을 버리고 배우는 자세가 필요한 날. 72년 업무나 하는 일에 하자가 발생해 효율성을 저해하니 섬세함이 필요. 84년 친구따라 강남 간다는 속담에 후회가 있는 날이니 자중하라.
	42년 식상이나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 지나친 음주는 자제. 54년 문서운, 계약운이 길하고 변동운도 원만. 66년 나보다 상대가 강하다. 다툼, 소송전에서는 불리하니 신속한 타협점을 생각하라. 78년 작은 실수가 화를 부를 수 있으니 언행에 주의하라. 90년 매매나 문서상 이익이 오니 미루지 말 것.
	37년 건강회복 약물의 효과가 있으니 길하다. 49년 업무나 일에 중단이 있으니 차후 계획을 긍정적으로 철저히 세워라. 61년 재물에 대한 손실이 있으니 변동이나 이동은 불리하다. 73년 몸이 분주하고 할 일이 많아지니 동료나 부모님께 도움을 받아야 한다. 85년 만남이나 모임이 있어 즐거운 날이다.
	38년 몸이 곤란해지고 허약해질 수 있으니 건강관리에 유념하라. 50년 안전사고에 의한 재물의 손실이 있으니 만사주의. 62년 배탈사고나 기계고장 등으로 일이 지연. 74년 업무량이나 활동성이 증가되고 이윤이 있으니 최선을 다하라. 86년 이성으로 갈등한다. 득보다 실이 많으니 약속을 보류하라.
	39년 분심이나 불건을 두고 오니 잘 챙겨야 한다. 51년 과도한 재물이 화를 부르는 정도를 지겨워. 63년 뜻하지 않는 손님이 방문을 하게 된다. 예외와 접대는 존경을 얻는다. 75년 열심히 일한 당신이 아름답다. 성과가 있으니 최선을 다하라. 87년 정보수집이 많으면 많을수록 직업을 가질 수 있다.
	40년 일에 성과가 있으며 고민하던 일이 해결. 52년 천이나 벼를 만나고 전문가를 접해 많은 정보를 수집한다. 64년 나태함과 게으름이 후회를 남으며 부부간 다툼이 된다. 76년 대인관계에 세심한 배려가 좋은 결과로 나타난다. 88년 공부보다는 아르바이트나 직업 또는 금전 문제가 더 앞선다.
	41년 변동 수 불리하고 실패가 따르니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 53년 사사로움 감정이나 오해로 인해서 주의하면 해소된다. 65년 자녀문제가 가정화로 확산된다. 77년 변동이나 변화가 필요하며 급전 저축이 발생한다. 89년 이별에 아쉬움이 상처가 되겠지만 또 다른 이성이 다가온다.
	42년 자녀 중 경사가 있거나 반가운 소식을 접한다. 55년 아랫사람이 자문을 구하면 흔쾌히 받아들일 것. 허극상이 오는 경우도 있다. 67년 모임이 있으면 차를 두고 가는 것이 현명하다. 79년 직업에 변화가 필요하다. 91년 반가운 마음과 술이 나를 찾는다. 과음절제.
	44년 어려움 속에서 작은 도움을 얻으나 내일을 기약하기에는 역부족. 56년 금전적 손실이 따르거나 형제, 동료간 논쟁을 조심해야. 68년 관제구술수가 두려우니 미연에 예방하라. 부부애정 적신소. 80년 시월스런 소식을 접하고 만나는 이가 귀인이다. 92년 형제의 기쁜 소식을 듣거나 용돈이 생긴다.
	45년 나눔을 주게 되거나 봉사할 일이 기다린다. 57년 문서 매매 이동 등의 일이 생기고 자식관련 좋은 소식이 많이 있다. 69년 업무에 문제가 발생하니 격려와 용기가 필요할 때. 81년 새로운 교제가 진행된다. 나와 편안하게 대화가 통한다. 93년 의욕이 증가해 무슨 일든 하고 싶다.
	46년 내가 도와준 만큼 실속은 적다. 욕심을 내지 말고. 58년 자만심이 화를 부르고 후회를 만드는 격이니 나보다 상대를 중히 여김이 필요. 70년 업무과중이나 헛사탕의 충고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82년 성실히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얻는다. 94년 우정에 불화의 골이 깊어지니 신속하고 진심어린 배려가 필요.
	47년 하던 일을 변동하는 것보다는 그대로 추진하라. 무리수는 후회를 부른다. 59년 상가나 병원 등을 방문하거나 본인이 병원에 갈 일이 생긴다. 71년 성과가 있고 이익이 현실로 나타난다. 83년 취업이나 직업변동이 오기도 하고 인정받기도 한다. 95년 부모님 건강이 불리하니 옆에 있어주는 것도 위안이 된다.